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12.(제10호)

# 코로나19 시기 가족돌봄 실태와 과제\*

이선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2021)

가족 내 돌봄제공자 지원방안 연구: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2021)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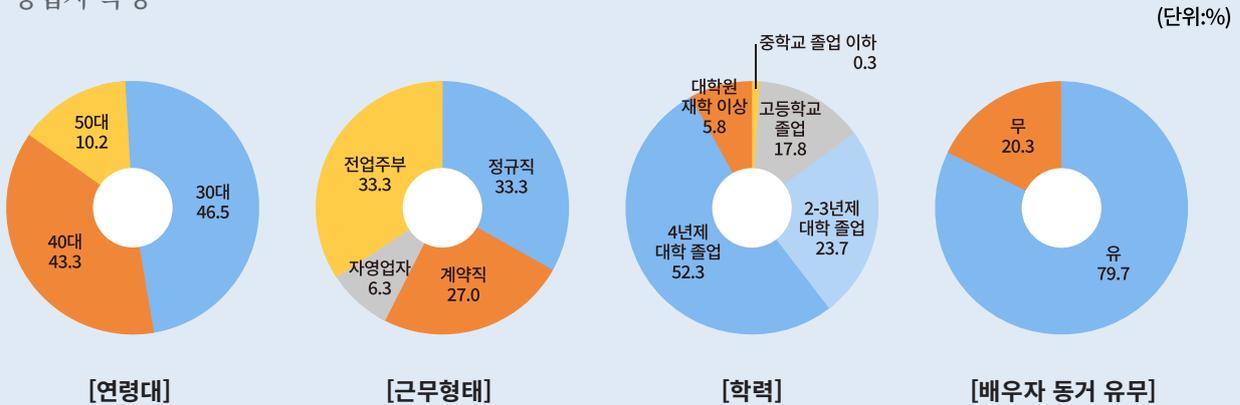
서울시 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2020)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201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비대면 사회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 교육, 공적 돌봄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자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은 개별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부터 가족 내 돌봄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던 여성들의 삶은 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와 원격학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족 내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비대면사회 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 □비대면 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조사 대상 : 서울시 가족 내 돌봄 노동 수행 중인 30~50대 여성 600명(\*소득기준 제한)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간 : 2021년 10월
-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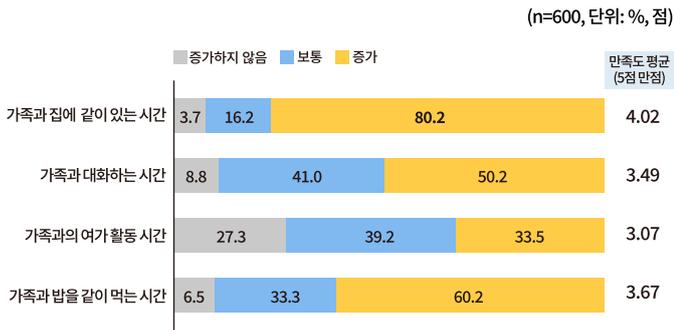
\*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1년 수행한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이선형·기나희, 2021)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한 자료임

## 코로나19 시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변화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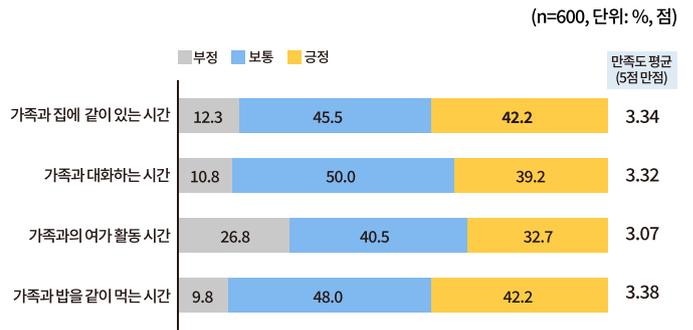
### ○ 코로나19 시기 가족과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만족도는 낮아

-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변화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은 증가한 반면, 가족과의 여가 활동 시간은 변화가 작음. 가족과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80.2%였으나 그 시간에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42.2%에 그침.

| 그림1 |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변화



| 그림2 |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만족도



### ○ 여성의 상황에 따라 달리 체감되는 고충과 부담

- 가족 구성원의 장애 및 질병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여성들의 시간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근무 형태로 살펴보면 계약직 및 자영업자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 시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낸 전업주부, 그 시간 만족도가 낮은 계약직 및 자영업자 여성들, 장애 및 기타 사유(질환 등)로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의 고충은 고용 지위, 돌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표1 | 코로나19 이후 가족 시간 변화 만족도

(n=600, 단위: 점)

구분	만족도(5점 만점)								
	집에 같이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여가활동 시간		밥을 같이 먹는 시간		
	평균	F	평균	F	평균	F	평균	F	
전체	3.34		3.32		3.07		3.38		
돌봄 대상자	아동(A)	3.39	3.43*	3.34	1.85	3.13	4.27*	3.44	6.19** (A > C)
	노인(B)	3.21		3.29		2.90		3.27	
	장애인 및 기타(C)	3.16		3.11		2.84		3.04	
고용 지위	정규직(D)	3.37	.83	3.31	.58	3.15	1.64	3.39	.96
	계약직 및 자영업자(E)	3.28		3.28		2.98		3.32	
	전업주부(F)	3.37		3.36		3.07		3.43	

주: \*\*p < 0.01, \*p < 0.05

A: 아동(n=440), B: 노인(n=115), C: 장애인 및 기타(n=45), D: 정규직(n=200), E: 계약직 및 자영업자(n=200), F: 전업주부(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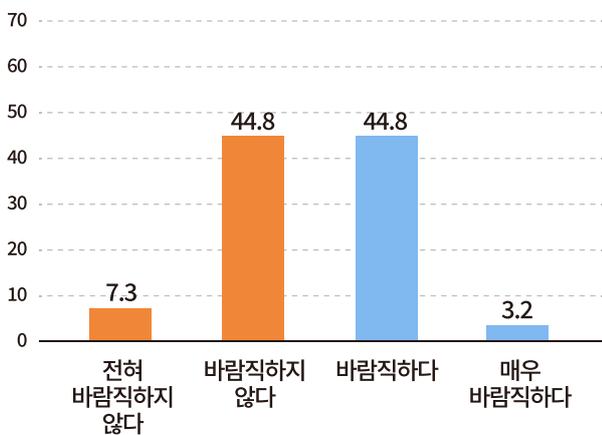
## 비대면 사회 노동과 교육은 어디에서?

### ○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고려 필요

- 아동을 돌보는 이들은 원격학습 활성화가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지 않다)’는 52.1%,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는 48.0%로 응답함. 재택근무 활성화는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4.4%,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나 원격 학습에 비해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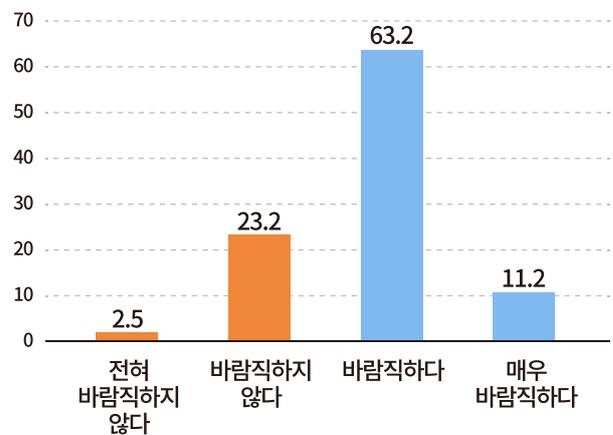
| 그림3 | 원격학습 활성화 의견(아동)

(n=440, 단위: %)



| 그림4 | 재택근무 활성화 의견

(n=6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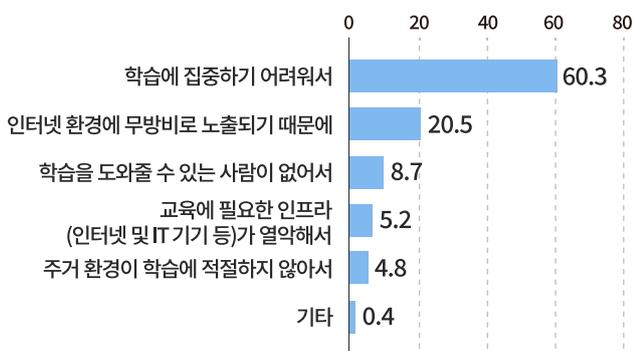


### ○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고, 업무와 가족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원격학습·재택근무

- 원격학습 활성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워서’(60.3%),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20.5%),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8.7%) 등을 꼽았음. 재택근무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 53.4%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17.0%,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15.0% 순으로 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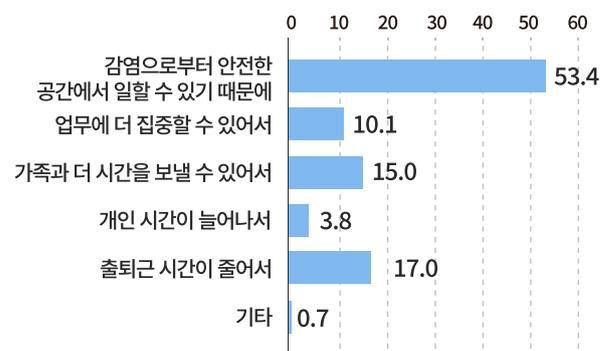
| 그림5 | 원격학습 활성화 반대 이유(아동)

(n=229, 단위: %)



| 그림6 | 재택근무 활성화 찬성 이유

(n=44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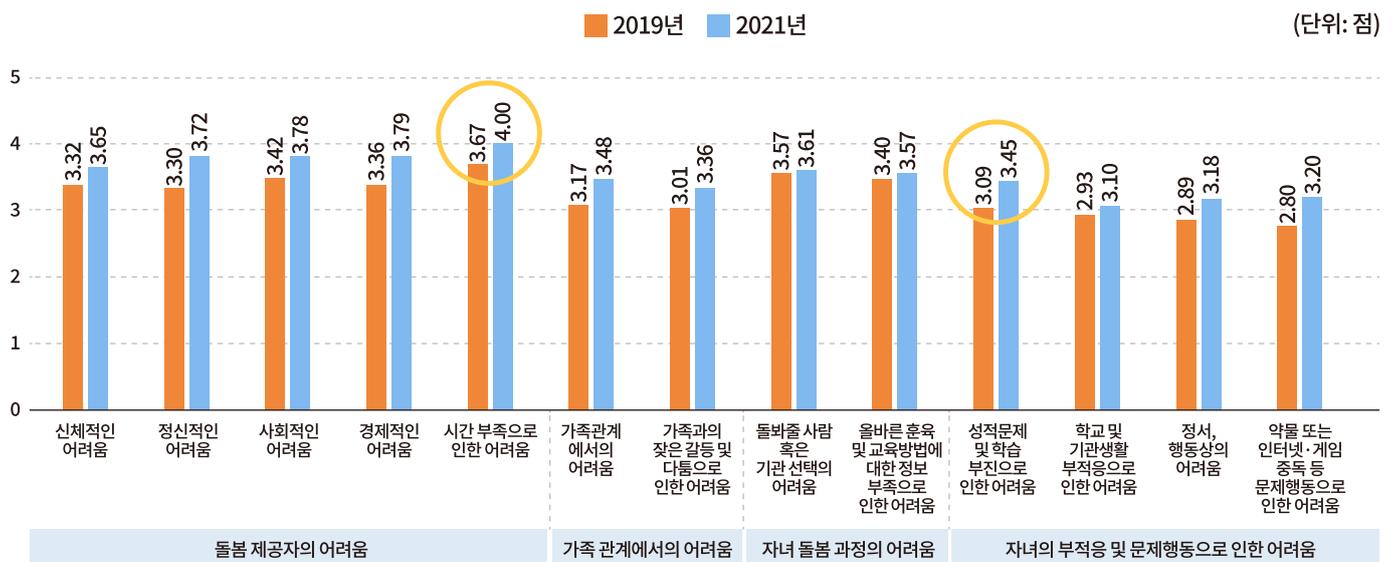


## 비대면 사회 돌봄 제공자의 정신건강\*

###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스트레스: 시간 부족

- 가족 내 여성의 돌봄 집중 현상은 돌봄 제공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2019년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돌봄 과정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증가가 통계적으로 확인됨. 주 돌봄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대다수 항목에서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어려움이 증가함. 특히 시간 부족은 2019년과 2021년 모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음. 시간 부족 다음으로 2019년도에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높게 조사된 반면, 2021년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기와 스트레스가 여성의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인 요인과의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가족과의 갈등과 다툼 등으로 인한 어려움 역시 2021년에 증가하여 앞서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이유를 뒷받침함.
- 아동을 돌보는 경우 2021년 자녀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성적문제 및 학습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21년에는 2019년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약물 또는 인터넷·게임 중독 등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그림8 | 아동 돌봄 수행 중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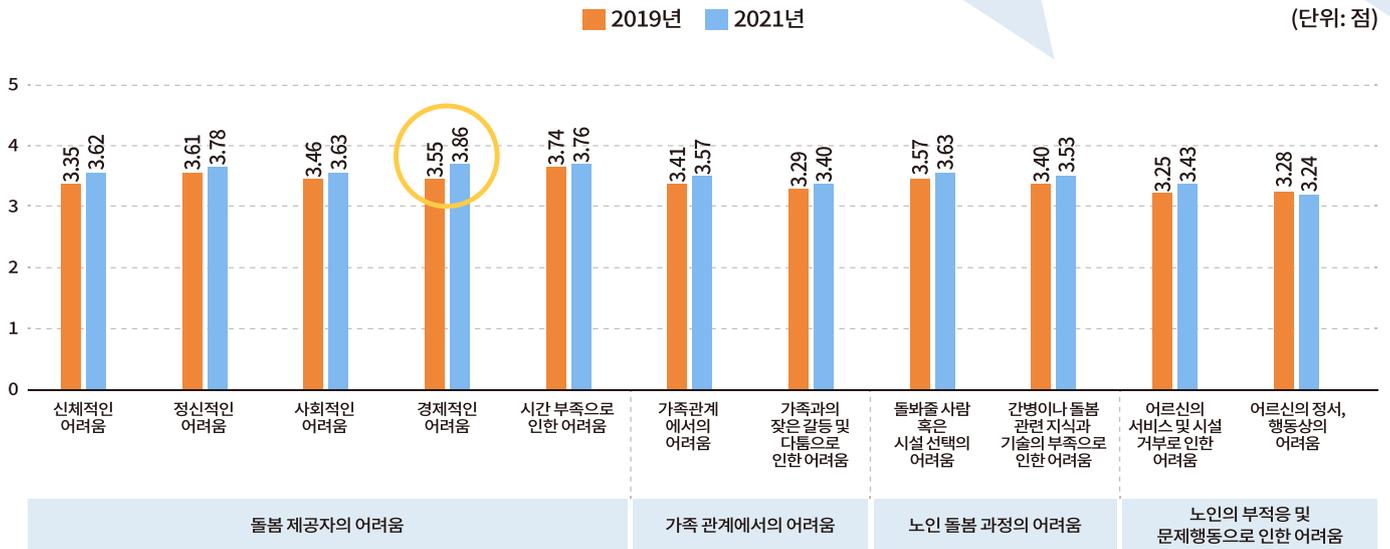


### ○노인을 돌보는 사람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고충과 정신적인 어려움

-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의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2019년에 비해 2021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아동 돌봄에 비해 시간 부족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021년 연구에서 장애인이나 기타 집중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시기 가족 내 돌봄 제공자 고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코로나19 시기 돌봄제공자의 정신건강 및 어려움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9년 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이선형·손정연(2019),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조사내용 중 돌봄 어려움 및 스트레스 관련 문항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다만 2021년 조사에서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함.

[그림9] 노인 돌봄 수행 중 어려운 점



○ ‘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 어려움이 가장 큼

-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30.5%가 ‘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라고 응답하였음.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직 근무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49.0%로 다른 그룹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남. 특히 계약직 근무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임금 변화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수입)을 받았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으나, 계약직 근무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임금 및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응답은 정규직 근무자는 3.9%에 그쳤으나 계약직 근무자 및 자영업자는 21.7%로 상당한 비율로 나타남.

[표3] 코로나19 이후 가족 돌봄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

(n=600, 단위: 빈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χ <sup>2</sup>	
전체	109(18.2)	78(13.0)	183(30.5)	77(12.8)	19(3.2)	134(22.3)	35.03***	
돌봄 제공자	아동	86(19.5)	61(13.9)	107(24.3)	65(14.8)	13(3.0)		108(24.5)
	노인	17(14.8)	13(11.3)	55(47.8)	10(8.7)	5(4.3)		15(13.0)
	장애인 및 기타	6(13.3)	4(8.9)	21(46.7)	2(4.4)	1(2.2)	11(24.4)	
근무 형태	정규직	40(20.0)	26(13.0)	46(23.0)	36(18.0)	6(3.0)	46(23.0)	57.81***
	계약직 및 자영업자	25(12.5)	21(10.5)	98(49.0)	18(9.0)	8(4.0)	30(15.0)	
	전업주부	44(22.0)	31(15.5)	39(19.5)	23(11.5)	5(2.5)	58(29.0)	

주: \*\*\*p < 0.001

아동(n=440), 노인(n=115), 장애인 및 기타(n=45), 정규직(n=200), 계약직 및 자영업자(n=200), 전업주부(n=200)

①외부 돌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가족 돌봄 증가, ②경력단절로 인한 불안감, ③일자리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 ④감염으로 인한 가족자가 격리 우려, ⑤가족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우려, ⑥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원격학습 및 재택근무)

○ 아동의 사회적 교류·신체활동 부족, 노인 우울과 스트레스 우려 높게 나타남

- 돌봄 대상자에게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회적 교류 부족이 2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아동의 경우 사회적 교류 부족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과 장애인 및 기타 집중 돌봄에서는 신체활동 시간 부족이 23.5%로 가장 많았음. 주목할 점은 노인의 우울함 호소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임. 돌봄 대상자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및 기타 집중 돌봄에 비해 우울·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인 돌봄 우려 사항으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또래 활동 부족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등 무분별한 사용 또한 29.5%로 높게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나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 무분별한 미디어 환경 노출로 인한 부작용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코로나19 시기 노인과 장애인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요구됨.

표4 | 코로나19 이후 돌봄 대상자에게 걱정되는 점

(n=600, 단위: 빈도(%))

구분	외부활동 시간부족	사회적 교류 부족	인지기능 저하	신체활동 시간부족	우울함 호소	기타	χ <sup>2</sup>
전체	131(21.8)	173(28.8)	71(11.8)	156(26.0)	61(10.2)	8(1.3)	
돌봄 대상자	아동	107(24.3)	141(32.0)	39(8.9)	118(26.8)	4(9)	53.09***
	노인	14(12.2)	25(21.7)	25(21.7)	27(23.5)	1(3)	
	장애인 및 기타	10(22.2)	7(15.6)	7(15.6)	11(24.4)	7(15.6)	

주: \*\*\*p < 0.001  
 아동(n=440), 노인(n=115), 장애인 및 기타(n=45)

○ 주요 시사점

- 첫째, 코로나19 시기 가족 내 돌봄 실태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일과 돌봄 증가임. 돌봄 서비스의 중단으로 가족 내 돌봄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임. 본 연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시기 가족 내 돌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한 그룹은 전업주부와 계약직 및 자영업자 그룹임.
- 둘째, 돌봄이 가족으로 집중되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 코로나19 시기 가족 내 돌봄의 증가는 주 돌봄 제공자였던 여성들이 공적 돌봄의 역할을 대체한 결과임. 그러나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를 수반하여 이들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셋째, 사회적 필수 노동으로서 돌봄이 재발견됨.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 전 생애에 걸쳐 필수적으로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음. 코로나19 시기 돌봄 서비스의 중단과 그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는 필수 노동으로서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 비대면 사회 돌봄 정책 방향과 과제

### ○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코로나19 시기 돌봄 기관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은 가족 내에서 돌봄을 수행한 여성들이 담당했음. 이 여성들의 가족 내 돌봄 수행은 코로나19 시기 가구소득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가족 전략으로 기능하면서, 성별에 따른 일과 돌봄의 성별 분업은 더욱 견고해짐.
- 이처럼 돌봄이 가족 내 여성에게 집중되고 가족이 지역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의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필수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돌봄 서비스 확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때문이라거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돌봄 그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부각되었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돌봄의 지역성 강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대면 접촉이 가능한 근린 생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음. 설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은 운영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특히 이동과 공간 이용에 제약이 있는 아동 및 노인들에게 물리적인 공간과 서비스는 더욱 중요함. 이에 근거리 생활권 내 돌봄이 가능한 전달체계, 근거리 유대 관계가 사회적 돌봄의 기반이 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함.
- 근거리 생활권 내 돌봄을 위해서는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감염 우려 등으로 대규모 밀집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공공 시설의 용도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개방 할 것을 제안함. 학교 및 도서관 공간을 모두 개방하기 어렵다면 특정 시간대에 이용 인원을 예약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공공시설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단순한 돌봄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현재 사회서비스 인프라로 충족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돌봄의 보편성 강화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필수 노동으로서 돌봄의 재발견이, 이후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면 이 전환에 남성의 돌봄 참여는 필수적임. 지금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성이 돌봄 참여로 인해 고용 시장에서 모성 패널티를 겪기 때문으로 설명되거나 기존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이중고를 강화하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닌 맞돌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왔음.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노동이라면 그 노동은 보편적, 사회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이 다시 한번 확인됨.
- 한편 코로나19 시기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 중단과 돌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남. 특히 대면 서비스 노동에 집중되어 있던 중년 여성들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하였음. 이에 돌봄의 보편성 강화는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함.

| 표5 | 정책 방향 및 주요과제

정책 방향	주요 과제	돌봄 대상자별 주요 과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서비스 기관 중단 없는 운영, 유연한 운영	아 동   온라인 학습과 기관 내 대면학습 병행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기관 확충	노 인   데이케어센터 확충 장애인   지역 내 이용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확대 및 노동환경 개선	노 인   요양보호서비스 이용 가구 대상 기본적인 이해 교육 장애인   장애아동 방문 돌봄 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비대면 사회 새로운 돌봄 수요 우선 대응	아 동   온라인 플랫폼 발달에 따른 가족 내 디지털 이용 문화 교육 장애인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발
돌봄의 지역성 강화	소규모 돌봄공동체 지원	아 동   공동육아 및 자조모임 등 마을공동체 돌봄 네트워크 소규모 돌봄 공동체의 안전한 활동 지원: 공간 및 방역물품 지원 노 인   동네 건강 실천단 조직 지원을 통한 고립 예방
	지역 기반 돌봄 일자리 확대	공 통   돌봄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확대: 동네 건강 코디네이터, 간병·간호 인력, 동네 정원 운영 인력, 먹거리 생산 및 배달 인력, 식이 정보 상담 인력, 동네 돌봄 정보 제공 인력 등
	돌봄 친화적인 지역 내 공간 확대	공 통   돌봄 친화적인 공간 모니터링 사업 실시: 경사로의 확보, 공간 이용 어려움 지원 인력 배치 유무
돌봄의 보편성 강화	비대면 사회 여성 일자리 확충	공 통   필수 돌봄 노동 일자리 투자 확대: 계약직 돌봄 일자리 필수 노동으로 전환하여 근무 환경 처우 개선 공 통   가족 내 돌봄제공자의 비대면 사회 일자리 확대 (재택 및 원격 근무로 할 수 있는 일)
	돌봄 제공자 정신건강 지원	공 통   단기적으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지속 운영 및 확대, 장기적으로 지역 내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돌봄으로 인한 고립 해소
	노동자의 돌봄 책임에 대한 국가와 기업 부담 강화	공 통   가족 내 돌봄제공자 대상 ‘서울 가족돌봄휴가’ 지원: 가족돌봄제공자 여행 비용 지원 또는 가족 내 돌봄 인력 파견을 통한 휴식 시간 지원